일주문

대충 대종사 9주기 추모재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은 8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2대 종정을 지낸 대충 대종사 열반 9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27일 백고좌 회향대법회

지성 동화사 주지는 27일 오전 10시 동화사에서 개산 1509주년 기념 및 백고좌 회향대법회를 봉행한다. (053)982-0101

아미타불 괘불 점안식

일오 대승종 총무원장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강북구민회관에서 통일염원 아미타불 괘불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부산 광주 등 전국순회 법회

법륜 정토회 지도법사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지에서 전국 순회법회를 갖는다.

불교문화유적 답사

영조 광주불교교육원장은 27일 회원들과 부여 무량사, 보령 성주사지 등으로 제62차 불교문화 유적답사를 떠난다.

21일 환경방생법회

회암 양평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은 21일 오후 1시 양평군청 앞 등에서 영산재 및 환경방생법회를 봉행한다.

'산사의 별빛 한마당' 개최

수경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는 19~20일 북한산 망월사에서 자연체험 행사인 '산사의 별빛 한마당'을 연다. (02)720-1654

수재영가 천도위한 영산재

혜공 대구 관암사 주지는 13일 갓바위 주차장에서 수해로 목숨을 잃은 영가들의 합동천도와 국태민안을 위한 영산재를 개최했다.

'국민화해…' 주제 발표

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회장은 8일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국민화해를 위한 종교인의 역할' 주제로 발표했다.

후불탱화 점안법회 봉행

리선행 마음의 쉼터 회주는 27일 오후 2시 횡성 '마음의 쉼터' 대웅전에서 개산 2주년 기념 후불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선문화예술원 개원

범주 속리산 달마선원장은 13일 경북 상주 달마선원 내 1백평 규모의 일반인을 위한 선(禪)문화 센터 '선문화예술원'을 열었다.

'선과 정신분석' 주제 강의

도각 한국선심리치료연구원장은 21일 오후 6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선과 정신분석'을 주제로 강의 한다.

국기발전 기여 국민포장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은 13일,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이혼의 법률적 문제들' 강좌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은 17일 오후 2시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곽배희 소장을 초청 '이혼의 법률적 문제들' 강좌를 연다.

일본석학 초청 강연회 열어

조용길 동국대 BK21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장은 7일 일본 고마자와 대학 타카미 타이슈우 교수를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正道令과…' 출판기념회

권경술 새생각실천회장은 10일 서울 유네스코 회관 11층에서 〈正道令과 正道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창립 11돌 모범회원 등 표창

박석규 대광맹인불자회장은 11일 창립 11주년 기념법회를 갖고 모범회원에게는 표창을,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감사패를 증정했다.

일본내 시명당유적지 답사

오재희 (사)시명당기념사업회장은 23~27일 일본 대마도와 구주지역으로 제2회 시명당 유적지 답사를 떠난다. (02)6263-2050

국어운동 공로 표창패 받아

9일 제556돌 한글날을 맞아 부산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사진 위)이 한글학회로부터 국어운동 공로 표창패를, 홍콩 불교대학 김광석 부교수(58)는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도원 스님은 93년 삼광한글학교 설립, 김광석 부교수는 홍콩에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공로가 인정돼 수상했다.

"'불교문화 대중화' 이끌 주체될 것"

6일 출범 통도사 신도회 장복만 회장

"불보종찰 통도사 불자들의 대의기구격인 신도회인 만큼 스님들과 신도들의 뜻을 받들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부처님의 정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월 6일 공식 출범한 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 신도회장으로 취임한 장복만(60 · 양산대 재단이사장 · 사진) 회장은 스스로를 '앞만 보고 달려와 부처님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소개하며 앞으로 정진과 포교를 위해 진력할 뜻을 피력했다. 양산대학교 재단이사장과, 동원문화장학재단 등 교육사업과 동원개발 대표이사 등 사회 활동으로 분주한 장회장은 "통도사와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적극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이날 출범한 통도사 신도회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활동을 벌여오던 포교국 산하 신행단체와 신도조직을 통합, 정식 출범한 것. 관음회, 지장회, 봉찬회를 비롯 포교국 산하의 14개 신행단체의 대표기구다.

"기존 신행단체의 개성을 최대한 살려나가면서 더불어 연대와 교류를 강화한다면 조직의 역량과 역할이 배가될 것"이라고 내다본 장회장은 "신도회가 사부대중의 힘을 결집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대사회적 포교활동을 통해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승불교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신행단체들과 연대 · 교류 강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지회 조직 재정비. 장회장은 13일 양산지회, 울산지회, 부산지회, 서울지회의 조직을 재정비한 후 13일 임원 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 활동에 돌입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소외된 이들에 부처님 가르침을…"

자작 기초교리서 '연꽃' 보시 나선 박명숙 씨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모르는 부분은 사전을 뒤져 공부해 가면서 5년 만에 펴낸 책이 바로 〈연꽃〉입니다."

30년 넘게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관음회를 조직해 신행과 포교의 일선에서 활동해 온 박명숙 씨(63 · 사진). 최근 직접 쓴 기초교리서 〈연꽃〉을 들고, '불서 보내기 운동'에 나섰다.

"군법당과 구치소, 소년원, 양로원 등에 가보면 불교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궁금증을 풀어줄만한 불서들이 너무 부족했어요." 〈연꽃〉은 부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사성제, 팔정도 등 기초교리와 불교 경전, 절의 구조와 명칭, 승가, 수행의 계위 등으로 구성됐다. 박씨는 2천부를 찍어서 그동안 인연맺었던 군법당과 구치소, 양로원 등에 보냈다.

이은자 기자 eljee@buddhapia.com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시력 잃어가는 할머니

경로당 쪽방서 힘든 노년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김복녀 할머니(71 · 진관외동)의 블루스는 끝없이 이어진다. 음악도 없고 조명도 없는, 서울 진관외동 3평 짜리 쪽방에서 추는 춤이건만 잔뜩 신이 났다. 얼마 전부터는 눈마저 보이지 않게 됐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김 할머니의 고향은 경북 의성군 너럭바위골이다. 대동아 전쟁 징용을 피하기 위해 결혼한 첫 남편은 6 · 25 전쟁으로 떠나 보냈고, 두 번째 만난 남편마저 51살에 세상을 등져버려 혼자 몸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다.

하지만 미국생활 10년 만에 김 할머니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구수한 고향 땅 냄새를 맡고 싶었고 진저리치도록 시큼한 김치를 먹고 싶었던 할머니는 끝내 딸 가족을 남겨 두고 한국행을 선택했다.

하지만 한국생활은 쉽지 않았다. 미국 생활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이 하나 둘 고개를 돌리자, 김 할머니는 끝내 외톨이가 됐다. 여기에 미국 사는 딸에게서도 연락이 끊겼다. '가게가 잘 안 된다. 일 하러 가야 한다'는 전화가 마지막이었다. 그렇게 10년. 김할머니는 전국을 떠돌며 닥치는 대로 일감을 받아 생계를 이어왔다.

작년부터 김 할머니는 진관외동 경로

딸 따라 도미했다 귀국, 어려운 생활

명암만 식별 … 무료급식으로 끼니

◇하나 있는 딸과의 연락도 끊어진 김복녀 할머니는 경로당 구석 방 한 칸에 몸을 의지한 채 고단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결혼한 딸을 따라 도미(渡美)했던 10년 세월. 할머니는 말도 안 통하는 땅에서 손녀를 키우며 살아왔다.

할머니가 추는 블루스도 이때 배운 것이다. 말벗이라고 칭얼대는 두 손녀뿐이기에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을 달래고자 조금씩 배운 것이다. 할머니에게는 이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 어엿한 가정도 있고 평생 따라다니던 배고픔도 없었기 때문에.

당 방 한 켠에 세 들어 산다.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일자리도 없기 때문이다. 나라에서 가족없는 노인에게 주는 생활비인 30만원으로 한 달을 버틴다. 방세 12만원 내고 나면 18만원이 남는다. 따라서 하루 생활비는 오천원이 조금 넘는다. 인근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는 급식으로 점심 한끼를 해결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먹는지 모르게 때운다.

그래도 굶지는 않고 산다고 김 할머니는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할머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평생을 앓아왔던 당뇨병이 악화돼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간신히 환한 것과 어두운 것만 구분할 뿐이다. 김 할머니는 어두운 게 제일 싫다. 눈이 정말 안 보이게 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쪽방을 나서는데 문틈으로 할머니의 18번이 흘러나온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흩날리누나…봄날은 간다, 봄날은 정말 자알 가안다…."

후원계좌:주택은행 김복녀 461925-96-109483. 전화번호)02-359-0932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관문사 창건4돌 기념법회 봉행

천태종 서울 관문사(주지 춘광)가 6일 창건 4주년 기념 및 서울지부 창립 32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운덕 스님과 정산 감사원장, 춘광 관문사 주지, 박봉식 금강대학교 총장 등 3천여 명이 동참한 이날 춘광 스님은 "지역사회 이바지하는 도량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 · 중 · 고생 39명에 장학금

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회장 이왕선)는 6일 초등생 9명,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10명 등 진안군 마령면 소재 모범학생 39명에게 모두 8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인근 지역 독거노인 20명에게 각 10만원씩의 후원금도 전달했다.

해인사 링 린포체 초청법회

해인사(주지 세민)는 티베트의 승왕 달라이라마의 왕사(王師) 링 린포체를 초청, 7일 대적광전에서 1029일 49재 열세번째 법회를 개최했다. 2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는 링 린포체의 법문에 이어 마정수기 의식도 가졌다.

경명주사로 직접 제작한 불서화의 대가

태광 선사의 행운의 달마 길상도

▷백팔달마 팔문 재수부

▷12띠 수복 달마

▷달마 백복도

▷금분. 불자 달마(의상지)

▷불자 반야 심경

* 각종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모전, 한국예술상, 대상 및 수상다수.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 현, UN IAEWP 한국대표부 문화예술 전문위원.
* 현,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각종 문화국장.
* 현, 한국어린이 보호재단 득심사 후원회장

불사 주문 신청 : 국민은행 075-01-0349-506 득심사

전 화 : 02)839-7829

판매금액의 일부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어린이보호재단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기증합니다.